

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심아전력** 기계제조 설비전문점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증업체  
**▶용도: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솔레/이 051)743-3376**

# 현대불교

98 지방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8881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5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

허술한 문화재 관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쌍배불인 은주사 석불감배불좌상(보물 제797호), 팔각지붕과 감실 안쪽 벽면이 파손돼 문화재관리국의 주도하에 95년부터 96년까지 보수를 했으나, 재질이 관리하게 다른 석재로 지붕을 끼우고 월근조각으로 균형을 잡는 등 상식이하의 보수였다.

법하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 보수를 할 때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보수 지침에 맞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사찰에는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부터 탕화 불단 건축 탑 등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널려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성보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 미술관 등을

전립해 분할사의 유물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예외의 대상인 승보물 법당이 아닌 다른 곳에 모신다는 대한 반발도 있지만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인력에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처럼 전문학예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전문이 없이 전시기 관이 운영되고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학예사를 고용하거나 스승들이 전문지식을 체득해 체계적인 관리 보증을

피해야 한다.

사찰 문화재 안내관을 만들거나 사찰전반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설명을 위해 절을 찾는 신도들이야 스님에게 물어볼 기회도 있지만 잠시 사찰을 찾는 관광객이나 단체 관람을 하는 학생들은 사찰 전각이름조차 알기 어렵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안내자료를 절마다

작성해 사찰에 걸면, 성보문화재 소개, 스님들의 수행생활 등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다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찾아온 관람객을 볼자로 끌어들이는 포교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사찰 내에서의 관람태도에 대한 교육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opia.com

## 남북 종교지도자 '민족화해' 다짐

북경 모임서 교류정례화 합의

- 99 '북경선언'**
- 7·4 남북공동성명 3대원칙 재확인
  - 서울·평양 또는 제3국에서 다음모임 추진
  - 북한에 인도적 지원
  - 민족적 화해와 단합위해 불교과 기도



○KCRP회장 고산스님이 북경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찌지 나사키 ACRP사무총장, 고산스님, WCRP사무총장최해원, 원희 오시야키 위원장, 장재연 회장

남한과 북한, 일본측 종교인 대표들은 4월 25~27일 중국 북경 캄핀스키호텔에서 종교인 평화모임을 갖고 남북종교인 교류의 정례화에 뜻을 같이 했다. 3차 대표들은 27일 평화모임 마지막 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 북경선언'을 채택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스님과 조선종교인평화회의(KCR) 회장 장재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모찌지 나사키 사무총장 등이 서명한 북경선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상호 관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다음 모임이 서울/평양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KCRP 변진총 사무총장은 "실무협약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5월 6일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담단의 남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일 종교인대표들은 97년에도 베이징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내년 모임이 이뤄지면 남·북한의 최고위급 종교인들의 세 번째 회담으로 기록된다.

북경선언에서는 이밖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교적인 양상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끊임없이 불교과 기도를 바쳐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북경 종교인평화모임은 우리나라에서 고산스님을 비롯해 대표단, 장관인 등 30명, 북한에선 장재연 회장을 단장으로

5명, 일본에선 8명이 참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전략과 실천계획'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토론, 선언문 채택을 위한 실무회담 등으로 진행됐다.

KCRP 사무처장 박광수교무(원불교)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 "日 구세관음상 백제서 만들었다"

김상현교수 주장

일본 법흥사 동전의 비불(秘佛)인 구세관음(시진)이 제작지 논쟁에 휩싸였다. 일본 학계에서 일본 최고의 불상이자 일본불교의 수호자인 성덕태자상이라고 소개하던 구세관음이 사실은 백제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을 기려 만든 유상(遺像)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일본 학계에서 구세관음을 성덕태자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덕태자의 전신을 백제 상왕으로 여겼던 당시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9면>

동진 구세관음은 1년에 한번 일본에 공개된다. 처음 공개되던 1884년까지도 법흥사에서는 "몽전비불을 공개하면 신변을 받아 지진이 일어난다고 법흥사가 통과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김지연 기자



## '건축법 재개정' 건교부 불가 밝혀

조계종, 건축규제 항목 전사법에 신설 추진

조계종총무원의 건축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건교부는 4월 23일 재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계종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문화재·사찰 등의 보존은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건교부가 이같이 밝힘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인근지역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의 취지에 현저히 부합한 용도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통사찰보존법 9조 2항 (2)를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총무원과 문화관광부는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명칭 삽입 의견 접근

조계종-선학원 연석회의

조계종 법안대책특위(위원장 선학원 명칭에 '조계종' 삽입, 선학원의 분담금 납부시 행정 교육 및 승직발급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칭 변경 후 조계종측이 선학원 인사·재산문제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공중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학원측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조계종측이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면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4월26일 전문교육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경 '전문교육기관 교수·학인회의(가칭)'를 은하사 승가대학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전문교육기관의 위상과 방향을 진단하고, 각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성과, 교수법 등의 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 조계종 교육원 10월경 '교수·학인회의' 개최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4월26일 전문교육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경 '전문교육기관 교수·학인회의(가칭)'를 은하사 승가대학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전문교육기관의 위상과 방향을 진단하고, 각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성과, 교수법 등의 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 구산신문 참선 기행

5월 : 실상산문(실상사) · 쌍계사 · 칠불암

5월은 구산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간된 실상산문의 중심도량인 실상사를 찾아가입니다. 경평한 절마당 곳곳에 잘 보존돼 있는 상종석탑(보물 제37호) 2기와 석등 등 문화재를 비롯해 귀농학교 농장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쌍계사에서는 차(茶) 시배지와 진강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목각탱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칠불암에서는 새로 복원된 전통 수형 선방에서 참선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출발: 5월 2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계종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o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정성운 기자

## 부처님 오신날 행사 인터넷 서비스

부디피아 · 달마넷

부디피아는 4월 28일 조계사 불은사 등 서울시내 주요사찰과 각 지역불교위원회의 행사 일정과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다. 캐릭터는 컴퓨터로 전송받을 수 있다. www.buddhopia.com을 연

##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중정 혜암대종사 추대식



대한불교 조계종 제10대 중정 혜암 대종사의 중정 추대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3(99)년 5월 11일 (음력 3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참석스님께서서는 장상에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봉행위원회

- 증명: 서용  
 고문: 관용 고승 석주 비룡 운경 도천 원담 탄성 응담 도진 일타  
 성수 승산 정하 법진 정천 종산 지중 녹원 도원 보성  
 봉행지도위원: 월주 범룡 혜정 지관 월운 능가 천운  
 봉행위원장: 총무원장 고산  
 부위원장: 총회위원장 법등, 호계위원장 월서, 교육위원장 일면, 포교위원장 정권,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현성, 법규위원 비파

- 봉행위원:  
 원택 만성 일권 양산 성조 종고 계성 도원 현진 화암 대오 정파 도후 현해 해광 진희 법장 성덕 법타 성타 성주  
 종현 성오 법조 도영 다정 종걸 현지 보선 종원 법현 부림 도법 법하 법현 종진 장산 정호 혜은 종진 정관 종교  
 학봉 선용 성용 휴경 무산 원행 혁명 고우 정광 성우 현산 인각 무어 원용 정찬 지한 지홍 은성 정화 명진 종하  
 지하 정대 정후 근일 종상 해광 영배 영담 장운 영조 지현 성관 종림 광복 세영 마근 도완 정남 지명 진각 장곡  
 정목 법보 능관 도각 수완 정인 석호 정각 설승 원행 성오 화법 진만 종삼 범종 월우 대원 진원 경훈 현봉 지옥  
 현웅 항적 법안 학담 정우 여연 광조 원명 지홍 유광 장적 무이 태공 문산 무관 덕은 일수 영진 성법 원각 법장  
 진기 성정 현근 지성 도공 도현 원우 자승 도진 정안 광우 상훈 진관 명성 태경 묘연 대행 명우 법성 본각 해주  
 일법 수현 윤달 지형 도문 계호 경륜 서돈각 승석구 상낙승 허문도 서석재 박상규 박철현 함종환 홍성호 김노연  
 김종택 이희수 윤석관 김현곤 이병훈 최동원 안종학 변영우 김동기 이종화 류진수 박봉식 권세록 이상무 최종대  
 최종형 김계현 강창식 이상현 홍유진 (무순)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중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고 산